

사설

거품대학 관성을 부셔라

또다시 금융 대란설이 거론되고 있다. 이번의 금융 대란은 지난 겨울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대규모의 것이고 부실 금융기관의 부도가 시발점이 되어 금융 공황과도 연계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맞고 있는 경제 위기가 우리가 극복해야 할 위기의 전부일까?

현재의 IMF구제금융체제를 국가파산상태라고도 한다. 한 기업이 회회신정을 하거나 협조자를 받게 되면 모든 거래와 지출내역을 은행이 감당하게 된다. 우리나라가 IMF구제금융을 지원받으면서 국가 운영전반에 대해 IMF의 간섭을 받는 것은 기업의 회회신정과 비슷하다. 방만한 경영, 지나친 은행 융자, 비효율적 조직 운영 등의 이유로 회회신정을 하거나 부도가 난 기업 혹은 회회신정 직전에 가 있는 회사들과 한국이라는 국가는 너무 흡사하다.

이같은 국가 부도사태의 원인으로 외환관리 부실, 일본의 경기침체 등 대외 요인, WTO체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국민들의 정신적 부도 때문이 아닐까. 우리

나라 경제가 파산상태를 맞기 전, 우리는 이미 정신적 부도에 직면해 있었다.

금전 만능주의, 도덕의 부재, 교육목표의 상실, 사회윤리의 붕괴, 위기 불감증 등 정신적 부도 사태의 징후가 오래전부터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국민 대다수에 의해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치부되었다. 한창 학업에 열중할 나이의 청소년들이 학교 폭력에 시달려 등교를 걱정할 때, 유형업소의 미성년자 고용이 업소의 영업전략으로 등장하고 있을 때, 건물이 주저앉고, 다리가 무너질 때 우리는 이미 부도를 맞고 있었던 것이다. 경제뿐 아니라 일상 생활의 모든 것이 본질을 잃고 거품만 남아있다. 소규모 단체 뿐만 아니라 국가 운영에서조차 기본원칙이 통할 것이라는 믿음이 깨진지 오래이다.

보다 심각한 점은 국가 백년지대계인 우리의 교육도 이러한 정신적 부도상황의 예외지대가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의 교육은 이미 본질을 잃은지 오래이고 정치관 못지 않게 비효율적이다. 임시 위주의 주지주의 교육은 온갖 파멸을 낳고 있으며

이같은 상황은 대학에서도 계속되어 미래의 주역이 될 젊은 세대의 창의력 계발과 자유로운 사고 발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조차도 기존의 관성에 젖어 있는 학교 구성원들의 저항에 부딪힌다. 효율적 교육을 위한 제도개선을 거론하면 교육의 본질이라는 추상적 무기를 앞세워 가로막는다. 이렇게 하여 우리나라 대학들은 대부분 일제 시대 제국대학의 체제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이 국제 시장에 공개 된다면 역시 IMF구제금융 신청에 버금가는 위기에 직면할 것이 분명하다.

IMF시대에 생존은 진리이다. 그리고 생존의 조건은 창조적 변화이다. 새로운 역사 창조에 대한 희망을 잃고 사는 것이 아닌가 뼈저린 반성을 해야 한다. 대학이 주변이 유흥가로 변하고 돈으로 교직과 학직을 사고 팔며, 학문 수호를 명분으로 수업 거부 농성을 하고 있는 거품 속의 한국 대학, 이제 변화를 통한 새로운 도전, 실험정신, 이러한 것들이 대학의 본질로서 퇴락이나 정신적 부도사태를 극복하는 일이 시급한 때이다.

경희만평

노회령



시론 중소기업 회생을 위한 방안 모색

생존 위협받는 국민경제 뿌리, 양분주어 보호해야

세정부는 버거운 중소기업 처리 작업을 단행할 것을 공고히 했다. 그러나 국민경제의 뿌리라고도 같은 중소기업을 회생불가능하다고 해서 지원하지 않는 것은 선부른 행동일 수 있다. 따라서 이글에서는 중소기업을 회생시킬 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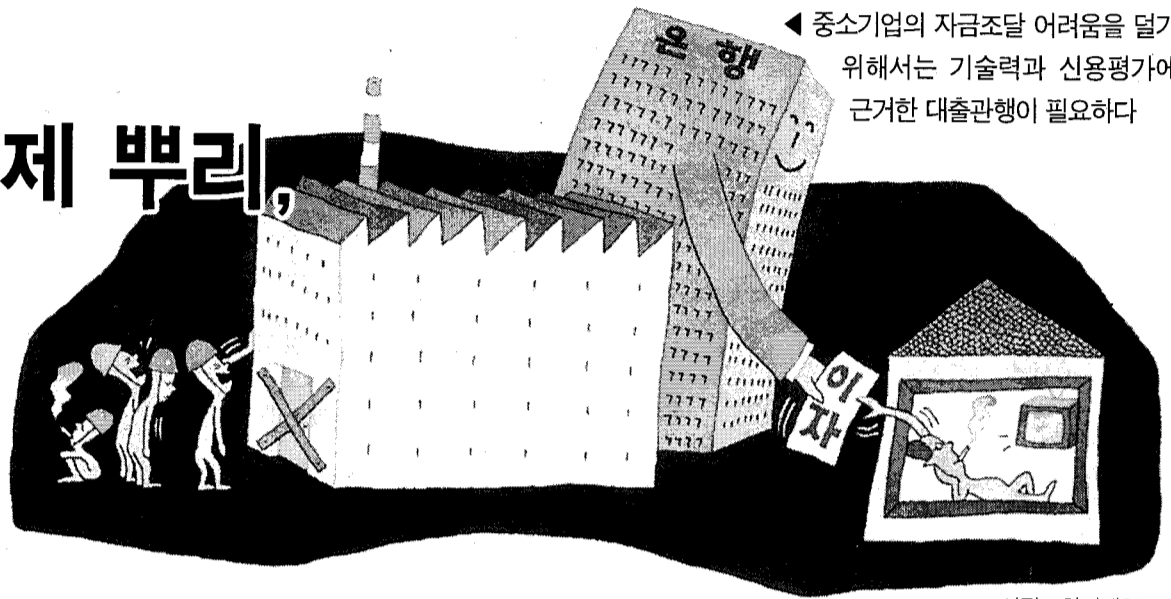


사진: 한겨레21

이재현 (경실련 시민입법 위원회 간사)

중소기업 정책의 기본방향은 현재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구조적 불합리를 제거하여 미래지향적으로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 발전시킴으로써 21세기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맞추어져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기업 편중지원의 경제운영 관행이 남아있고, 게다가 근래의 시장개방, 산업구조 변화 및 경기 변동 등은 중소기업에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더욱이 90년대 문민정부 출범 이후 경쟁과 효율의 논리 속에 중소기업의 부대기 도산사태를 구조조정이라는 관점에서 방관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까지도 견디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였으며 최근의 IMF로 인한 실물경제의 수축과 고금리로 인한 자금확보의 어려움은 중소기업에 더욱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문제는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금, 인력, 기술이 그것이다. 자금문제의 경우 시중은행의 재기업 편중여신이 문제다. 이에 임금 인

상, 금리 상승, 물가 인상 등의 자금 추가 부담 요인이 발생하였으나 내수 감소에 의한 과다 경쟁으로 제품 단가에 비용 인상이 반영되지 못하여 자금 압박이 심하게 되고, 물품 납품 대금의 결제수단이 현금결제보다는 주로 민기어음 결제로 이루어져 지급됨으로써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관련 예산을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 관련 금융기관의 능력을 강화하여 정책 금융 뿐만 아니라 일반 금융을 통하여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에서 벗어나 신용, 경영력, 기술력의 평가에 근거한 대출관행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금결제를 유도하기 위해 어려움제 폐지 및 축소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 어려움제는 대금지급의 간편화와 자금 확보의 유용함등으로 정책적 효용성, 안정성, 공평성 등의 저하를 초래하며 경기불황시 연쇄부도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세계에서 진성 여음제도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중소기업은 필요 인력의 부족과 높은 이직률을 시달리고 있다. 최근 IMF로 인해 인력난이 해소된 듯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이러한 인력난의 근본적인 해결은 다음의 몇가지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 기술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다. 이것은 실업제와 이공계 인력공급의 확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기술계 고등학교로 전환할 때 전환자금을 지원하거나 신용, 경영력, 기술력의 평가에 근거한 대출관행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금결제를 유도하기 위해 어려움제 폐지 및 축소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 어려움제는 대금지급의 간편화와 자금 확보의 유용함등으로 정책적 효용성, 안정성, 공평성 등의 저하를 초래하며 경기불황시 연쇄부도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이를 통해 장기적인 인력공급의 합리 여음제도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중소기업은 필요 인력의 부족과 높은 이직률을 시달리고 있다. 최근 IMF로 인해 인력난이 해소된 듯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이러한 인력난의 근본적인 해결은 다음의 몇가지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 기술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다. 이것은 실업제와 이공계 인력공급의 확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기술계 고등학교로 전환할 때 전환자금을 지원하거나 신용, 경영력, 기술력의 평가에 근거한 대출관행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금결제를 유도하기 위해 어려움제 폐지 및 축소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 어려움제는 대금지급의 간편화와 자금 확보의 유용함등으로 정책적 효용성, 안정성, 공평성 등의 저하를 초래하며 경기불황시 연쇄부도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는 기술력과 신용평가에 근거한 대출관행이 필요하다

몇몇 재벌에 의해 외형적 성장만 기록한 경제구조는 외풍에 견딜 수 없다

학교로 전환할 때 전환자금을 지원하거나 신용, 경영력, 기술력의 평가에 근거한 대출관행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금결제를 유도하기 위해 어려움제 폐지 및 축소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 어려움제는 대금지급의 간편화와 자금 확보의 유용함등으로 정책적 효용성, 안정성, 공평성 등의 저하를 초래하며 경기불황시 연쇄부도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이를 통해 장기적인 인력공급의 합리 여음제도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중소기업은 필요 인력의 부족과 높은 이직률을 시달리고 있다. 최근 IMF로 인해 인력난이 해소된 듯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이러한 인력난의 근본적인 해결은 다음의 몇가지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 기술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다. 이것은 실업제와 이공계 인력공급의 확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기술계 고등학교로 전환할 때 전환자금을 지원하거나 신용, 경영력, 기술력의 평가에 근거한 대출관행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금결제를 유도하기 위해 어려움제 폐지 및 축소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 어려움제는 대금지급의 간편화와 자금 확보의 유용함등으로 정책적 효용성, 안정성, 공평성 등의 저하를 초래하며 경기불황시 연쇄부도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이를 통해 장기적인 인력공급의 합리 여음제도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중소기업은 필요 인력의 부족과 높은 이직률을 시달리고 있다. 최근 IMF로 인해 인력난이 해소된 듯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이러한 인력난의 근본적인 해결은 다음의 몇가지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 기술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다. 이것은 실업제와 이공계 인력공급의 확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기술계 고등학교로 전환할 때 전환자금을 지원하거나 신용, 경영력, 기술력의 평가에 근거한 대출관행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금결제를 유도하기 위해 어려움제 폐지 및 축소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 어려움제는 대금지급의 간편화와 자금 확보의 유용함등으로 정책적 효용성, 안정성, 공평성 등의 저하를 초래하며 경기불황시 연쇄부도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이를 통해 장기적인 인력공급의 합리 여음제도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중소기업은 필요 인력의 부족과 높은 이직률을 시달리고 있다. 최근 IMF로 인해 인력난이 해소된 듯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이러한 인력난의 근본적인 해결은 다음의 몇가지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 기술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다. 이것은 실업제와 이공계 인력공급의 확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기술계 고등학교로 전환할 때 전환자금을 지원하거나 신용, 경영력, 기술력의 평가에 근거한 대출관행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금결제를 유도하기 위해 어려움제 폐지 및 축소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 어려움제는 대금지급의 간편화와 자금 확보의 유용함등으로 정책적 효용성, 안정성, 공평성 등의 저하를 초래하며 경기불황시 연쇄부도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세시봉

DJ에게 하고 싶은 질문

지난 5월 10일, DJ가 TV에 나왔다. '국민과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다. 권위적인 대통령상을 버리고 직접 국민들과 대화를 시도하려 한 점이 보기 좋았다. 두 시간 동안 질의응답 식으로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 주된 대화내용은 당연히 '경제위기의 총체적 극복방안'이었다.

그러나 나의 눈길을 끈 건 경제위기에 대한 원론적인 답변을 피우려고, 인위적인 정계개편의 당위성을 주장하려 애쓰는 DJ의 회색웃음에 머리카락이 아니었다. 간신히 지목을 받아 예바다 농이원의 부정부패에 대해 울분섞인 목소리를 토해내던 한 장애인 부부, 만약 '현명하신 대통령'께 지목을 받지 못했으면 DJ는 상황을 파악한 후 시정조치하겠다고 굳게 약속했지만, 공개적인 방송을 통해 질문을 받기 전에는 왜 시정조치를 못했는지 궁금하다.

소외받는 계층, 억압받는 사람들은 결코 운동계 발안권을 얻게 된 이들 부부만이 아니다. 지금도 도원동이나 행당동 철거지역에서 갈비뼈가 부러지고 살점이 찢겨 나가고 있는 사람들. 보고도 못 본 척 하는 것일까? 아니면, 민의 정변에 가려져 차마 DJ의 귀에까지는 들 어가지 않는 것일까?

그리고 민주화운동, 지금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배중인 화우들, 혹은 철창 신세를 지고 있는 양심수들,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경제 회복'이란 절대절명의 과제 아래 모두들 신경 쓸 겨를이 없었을까? 어쩌면 많은 방청객들이 발언권을 기대하며 애써 손을 들었는지도 모른다.

경제위기 극복은 당연하다. 온 국민이 다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말도 납득할 수 있다. 그러나 분담해야 할 고통에 민주주의의 희생까지도 포함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거대한 구호 아래 건전한 비판세력마저 묵살하려 한다면, 이는 과거 박정희의 군부독재시절보다 결코 나을 것이 없다.

물론 본인 스스로도 시인했듯 두 달 남짓 동안의 짧은 임기만으로 현정부를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 그러나, 시작부터 한계를 지니고 출발한 정부, 무식한 학생이 너무나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일까? 미흡한 끝이지만, 부디 DJ가 읽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홍섭 시사부장)



성명준중 · 정도경영

중외제약

SPC 600만 병 돌파기념

사은대잔치

SPC가 발매 후 600만병 돌파로 다시 한 번 렌즈관리용품의 대명사가 입증되었습니다. 하루 한 번 세척만으로 단백질제거까지 동시에 말끔히 해결하는 중외SPC — 뜻있는 경품으로 푸짐한 사랑의 행운을 잡으세요.

중외제약 음성정보시스템

(02)815-1999 를 통해 임신, 인발에 관한 건강정보(1선)와 콘택트렌즈 관리방법(2선), 콘택트렌즈와 상안경(3선), 콘택트렌즈(4선)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잔치 1 ARS 퀴즈잔치

지금 전화를 걸어 문제의 정답을 맞춰주세요. IMF시대에 맞는 색다른 경품, 의미있는 행운을 드립니다.

하루 한 번 세척만으로 ○○○○까지 동시에 말끔히 해결하는 중외 ○○○!

- 배움상 (3명)** 분야도 자유, 과목도 자유! 자신의 가능성을 찾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학원비(30만원상당)를 제공합니다.
- 보람상 (5명)** 6일간의 광고모니터 요원이나 홍보도우미 활동을 통해 사회 경험도 하고 용돈(30만원상당)도 벌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 독서상 (10명)** 30,000원 상당의 도서상품권
- 행운상 (500명)** 중외 PC크리너

ARS전화 : (02)815-1999
응모기간 : '98.4.25-5.24 (30일간)
당첨자 발표 : '98년 5월 30일 스포츠 신문

잔치 2 고객감사 선물잔치

행사기간중 중외제약의 렌즈관리용품인 SPC나 MPS를 구입하신 뒤, 라벨을 오려 판매처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 SPC상 (50명)** 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 MPS상(100명)** 헤어매니큐어
- 행운상(500명)** SPC샘플

행사기간중 SPC를 구입하시는 모든 분들께 예쁜 편시 필통을 드립니다.

Neo SPC
Neo SPC

응모기간 : '98.4.25-5.14 (20일간)
당첨자 발표 : '98년 5월 30일 스포츠 신문
보내실 곳 : 156-757서울특별시 남서울 우체국 사서함 96호 중외제약 광고팀 (02)840-6693-4

편익프렌즈세척 및 단백질제거제 — 청결, 소독, 보습, 윤활을 한꺼번에 —

SPC 맥 에피에스

■ 권장소비자가격: SPC(30ml)→6,600원, MPS(500ml)→6,600원